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 온전함이란 분열의 상대적인 의미다. 인간과 자연의 분열, 몸과 영혼의 분열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세상의 모든 차이를 알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어떤 차이도 없음을 알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궁극의 이치를 알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속인으로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속세를 초월한 높은 경지의 高人이 되라는 것이다.

편견과 아집은 왜 생겨날까?

- 우리는 경계(국가, 민족, 성별, 선악, 애증등)를 수없이 그었다. 그 경계에 따라 가치판단이 굳어졌다.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으로 말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경계와 가치판단을 받아들여 틀에 박힌 사고를 갖게 되었다. 무엇을 보든 곧바로 단정 짓고 판단한다. 우리 자신의 생활은 바로 이런 고정관념의 결과다.
- 갖가지 개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곤경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움짱달짝도 할 수 없으며,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낀다.
- 사실 곤경은 없다. 우리의 편견과 아집이 그런 곤경을 만들어 낸 것이다. 갖가지 차별성에 집착하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다.
- 부처는 차이를 보아야 하지만 또 차이를 보지 말라고 말했다. 세속에 살면서 동시에 세속을 초월하라고 했다. 부처의 말은 어떤 파편조각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온전한 존재 안에 살며, 작은 도랑에 살지 말고, 너른 바다에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매우 탁월한 지혜다. 분리된 사물들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이며, 서로 모순된 것들을 하나로 온전히 이어 붙이는 지혜다.
- 이 세상은 곳곳이 나뉘어 있고 구분으로 인한 집착이 흔하게 존재한다. 어떻게 구분하고 집착하는 습속에서 벗어날까? 세 가지 장벽을 깨뜨려야 한다. 첫째,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장벽, 둘째, 명분의 장벽, 셋째, 비교의 장벽을 깨뜨려라.

태어남과 죽음 중에서 태어남에 집착하는가?

즐거움과 고통 중에서 즐거움에 집착하는가?
인생이 고통스럽고 짧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즐기라.
전체 안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라.